



## 아트한 스위스 쇼핑.

### 스위스 최고의 박물관 기프트숍

박물관숍이 기프트 파라다이스가 될 때

미술관 보물 찾기

로컬들에게도 인기있는 기프트 아이디어

엽서, 사진, 포스터, 디자인 제품 등 다양한 아이템 구비

아트와 디자인은 선물하고, 배우고, 감탄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위스 예술계가 가진 철학이다. 그에 따라 스위스 박물관숍과 특별한 디자인 관련 행사들은 무척이나 광범위하고, 놀라우면서도 매력적인 아이템을 선보이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로컬들의 선물 쇼핑으로도 붐빈다. 이런 기프트숍의 제품들은 스타일리시하기도 하지만, 예술적 요소가 풍부하게 가미되어 있어 의미있는 선물이 되어준다. 선물도 박물관에 와서 쇼핑하는 스위스 사람들처럼, 스위스 여행 중에 아트한 쇼핑을 즐겨 볼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한다.

### 1. 크고 작은 예술 애호가를 위한숍: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아트숍 | 바젤(Basel)

카탈로그, 아트 프린트, 게임, 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한다. 바이엘러 재단의 아트숍은 아트계 인사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물급 인사들을 만족 시킬만한 아이템은 물론,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shop.fondationbeyeler.ch](http://shop.fondationbeyeler.ch)

### 2.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보물 찾기: 쿤스트무제움 바젤(Kunstmuseum Basel)숍 | 바젤(Basel)

바젤 시립 미술관의숍은 독특한 선물을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해 로컬들이 전하는 인사이드어 팁이다. 쿤스트무제움숍에는 카탈로그는 물론, 특별한 컬렉션으로 구성된 문학 작품들, 특별 전시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 일러스트 서적, 아트 서적, 독점 공급되는 디자인 제품들, 독특한 기념품도 눈에 띈다. 다채로운 포스터, 엽서, 아트 프린트, DVD도 인기다. [www.kunstmuseumbasel.ch](http://www.kunstmuseumbasel.ch)

### 3. 박물관 가든에서 온 과일들: 파울 클레 센터(Zentrum Paul Klee) | 베른(Bern)

박물관을 찾은 이들이 파울 클레 센터 주변의 잉글리시 정원과 완벽하게 가꿔진 회양목 울타리를 발견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인상적인 물결 무늬의 건물 뒤로 뻗어난 초록 들판과 다채로운 작물 경작지를 엿보고 모형을 떠나는 호기심 가득한 이들도 있게 마련이다. 박물관이 소유한 ‘프루틀랜드(Fruchtland)’에서 온 건강한 제품들을 박물관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www.zpk.org](http://www.zpk.org)

### 4. 사진광들을 위한 서점: 위제 드 엘리제(Musée de l'Elysée) | 로잔(Lausanne)

엘리제 박물관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곳의 서점은 박물관 컬렉션을 충분히 반영해 준다. 모노그래프, 카탈로그, 포토그래피, 시네마, 비디오 관련 서적 등 방대한 셀렉션을 갖추고 있다. 포토그래피 역사와 테크놀로지에 관한 책 역시 주목할만하다. [www.elysee.ch](http://www.elysee.ch)

### 5. 모두를 위한 아트: 아트 슈퍼마켓(Art Supermarket) | 졸로투른(Solothurn)

매년 11월 초부터 1월 초까지 열리는 아트 슈퍼마켓은 5천여 개의 다채로운 아이템을 훑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림 가격은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CHF 99부터 CHF 599까지다. 눈독들이던 품목이 좋은 가격에 나왔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헌터들이 많이 찾는 이벤트다.



젊은이들은 생애 최초의 오리지널 작품을 구입해 보려는 설레임으로 이 곳을 찾는다. 디자인 매니아들은 자신의 집 분위기와 어울리는 컬러의 작품을 찾느라 분주하다. [www.kunstsupermarkt.ch](http://www.kunstsupermarkt.ch)

**6. 작은 스케일의 아트: 포토첸트룸 빈터투어(Fotozentrum Winterthur) | 빈터투어(Winterthur)**

냉장고, 거울, 캘린더, 벽. 엽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취향을 아름답게 반영하는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졌다. 빈터투어 사진 박물관에는 최소 200 종의 엽서 사이즈의 포토그래피와 아트 모티브를 구입할 수 있다. 고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www.fotozentrum.ch](http://www.fotozentrum.ch)

**7. 더 아름다운 글씨를 위해: 쿤스트하우스 취리히(Kunsthaus Zürich) | 취리히(Zürich)**

우아한 고품질의 연필이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뮤지엄 숍에서 인기를 끈지는 꽤 오래 되었다. 지금은 필기구와 드로잉 도구들이 그 종류를 더 확장해 입점된 상태다. 볼펜, 순수 그라파이트 연필, 펜슬 브러쉬, 페인트박스 등 다채로운 도구를 쇼핑할 수 있다. 웬지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것만 같은 품질이다. [www.kunsthau.ch](http://www.kunsthau.ch)

**8. 스위스 디자인 클래식: 무제움 취르 게슈탈통(Museum für Gestaltung) | 취리히 웨스트(Zurich-West)**

과거 창고였던 샤우데포(Schaudepot)에 2014 년 그 문을 연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 무제움 취리 게슈탈통은 트렌디한 취리히 웨스트에 자리해 디자인, 그래픽, 응용 미술, 포스터 네 가지 컬렉션을 한 지붕 아래에서 선보이고 있다. 선별된 디자인 클래식 제품을 이 곳 박물관 숍에서 구입할 수 있어 로컬들에게도 인기다. 스위스 물통 회사인 지그(Sigg)의 클래식한 알루미늄 디자인 물통도 눈에 띈다. 지금은 트렌디한 물통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지만, 과거에는 스위스 사람들이 겨울에 뜨거운 물을 담아 침대 속에 넣어두고 자던 제품이다. [www.museum-gestaltung.ch](http://www.museum-gestaltung.ch)

**9. 스타일 돋는 기념품: 란데스무제움(Landesmuseum) | 취리히(Zürich)**

스위스 국립 박물관을 찾는 이라면 반드시 이 곳의 부띠끄 숍을 둘러 보아야 한다. 기념품, 엽서, 서적이 한가득이다. 2,000 개가 넘는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스위스에 대한 스토리를 품고 있다. [www.nationalmuseum.ch](http://www.nationalmuseum.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